



의령의 상징물 Uiryeong Symbol

1 심볼마크

의령군의 심볼마크는 의령의 '의'자를 중심으로 등글게 표현한 정제적인 시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하나의 움직임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여 성장하는 의령을 표현한다.

2 마스코트 : 흥의장군

의령군 마스코트는 의령 출신으로 입진예한 당시 의병으로 활약한 '흥의장군'을 형상화한 것으로 의연하며 사려가 깊고 의리와 용기를 겸비한 장군의 모습을 상징한다.

3 군목(郡木) : 은행나무

의령군의 군목인 은행나무는 수령이 곳곳에 선비의 기질이 있으며, 단풍이 든 모습은 품위와 기상으로 볼 때 군민의 투고한 번영과 넘치는 기쁨을 상징한다.

4 군조(郡鳥) : 비둘기

의령군의 군조인 비둘기는 투쟁심이 없고 성질이 온순하여 사람과 친밀하며 종·식용에 피해를 주지 않고 평화와 발전을 나타내는 길조로서 의령의 단결된 참모습을 상징한다.

5 군화(郡花) : 진달래

의령군의 군화인 진달래는 정열, 낭만, 우정, 기쁜 소식을 뜻하며 순결하고 순박한 그 모습과 강한 번식력은 협동과 사랑, 화합을 나타내는 의령의 발전을 상징한다.

의령의 축제 Uiryeong Festival

1 흥의장군 축제

흥의장군 축제는 입진예한 때 전라북도 의령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망우당 객재주 장군과 17장령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받들기 위해 1973년부터 매년 4월 22일을 장터로 잡단을 모아 장에 물을 뿌려 37개 마을을 만들며, 각 마을에서 만들어진 37개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고 각 읍·면의 집결 장소로 이동시킨다. 특히 줄을 만들고 이동할 때는 마을별로 제를 지내고 경건한 마음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국내 10여 개에서 치르는 큰소, 민속놀이와 있지만 이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울루 가네소독에 등재되어 있다.

2 의령 큰줄쟁기

1800년대부터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 의령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민속놀이로 3년마다 흥의장군 축제 행사로 치러진다. 제과 과정은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나면 23일과 24일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잡단을 모아 장에 물을 뿌려 37개 마을을 만들며, 각 마을에서 만들어진 37개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고 각 읍·면의 집결 장소로 이동시킨다. 특히 줄을 만들고 이동할 때는 마을별로 제를 지내고 경건한 마음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국내 10여 개에서 치르는 큰소, 민속놀이와 있지만 이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울루 가네소독에 등재되어 있다.

3 이호섭 가요제

이호섭 가요제는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호섭 작곡가와 의령군민의 손잡고 시민 가수 발굴과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만든 가요제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반 제작과 홍보를 지원한다. 흥의장군 축제 기간동안 개최되며, 공정한 심사와 화려한 무대, 이호섭 작곡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가수 지방들이 참여하여 전국 대표 가요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4 의령 토요에 수박축제

의령 토요에 수박축제는 의령 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수박 재배농가의 협업을 담아 의령의 대표 축제로 흥의장군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다. 의령 수박을 홍보 하기 위해 다양한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과 체험행사, 생미만 수박 산발대회, 문양수박 전시, 수박 카빙마트 체험, 책종호박 이음식 전시 등을 통하여 수박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들 함께 아우라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5 의령 민속소새 대회

의령 민속 소새 대회는 고려말 공양왕 당시 전주 목사의 관현에 있던 신변원이 합창한 후 이 두인 통사로 내려서로 할거하기로 소새를 통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조선시대 입진예한 당시 객재주 장군이 왜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낙동강과 남강변에 일제히 소를 몰아내어 곳곳에서 싸움을 붙여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함성을 질러 의병들이 많이 보이게 하여 정장전 승을 이끌어 내는 전략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의령군은 매년 4월 흥의장군 축제 기념행사 시 의령 전국 민속 소새를 대회와 수석맞이 의령 민속 소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6 의령 가래발 마라톤 축제

가래발의 우수성을 잘 보여 주는 밭 마라톤 축제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된다. 마라톤 판매장에서는 음식, 좋은 마라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마라톤 음식점에서는 마라톤, 삼겹살과 마라톤 전도 향긋한 마라톤 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7 한우산 철쭉제

공류면 벽계리에 위치한 해발 836m의 한우산 정상에서는 매년 철쭉 개화시기(4월 말 ~ 5월 초)에 철쭉제가 열린다. 한우산 철쭉제에서는 각종 문화행사, 전통놀이, 음악회, 철쭉제 등의 행사가 열려 가족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8 토요에 의령 농특산물 축제

토요에 의령 농특산물 축제는 청정 의령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애용의 자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11월 의령 무진리의 전통농산물판매 파크에서 열린다. 토요에 의령 농특산물 축제에서는 개막행사, 농·특산물 시식 판매행사, 전시·체험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고 소서물 대회, 군민노래자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무대행사가 함께 진행되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의령의 9경 Uiryeong 9 Scenery

1 총익사

의령읍 남산 밑에 위치한 총익사는 원진예(1952)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흥의장군 객재주(1552~1617) 의병장과 그 휘하 17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세워졌다. 우뚝 선 의병탑은 망우당 객재주 장군과 17장령의 위풍을 기리고 영혼을 추모하기 위하여 1972년 건립하였으며, 가운데 동궁 복제왕은 객재주 장군과 17장령을 뜻하고 양쪽 기둥의 팔자형은 햇빛을 상징한다.

2 자굴산

가래면에 위치한 자굴산은 동북 산줄기를 타고 가래로(양정사지, 굴바위마을), 서쪽 산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대의로(모의굴), 북쪽으로는 쇠목자와 공류 참바위로 이어진다. 봄이면 진달래와 산철쭉이 화사하고, 여름엔 보리수열매와 개구나무열매가 탐스럽고, 가을엔 굴바위 산마루, 산다래 등이 지천이다. 한 줄이 있는데 서기 727년에 신라의 예조소부인 장간한 성덕왕이 현재 일명사의 전신이다.

3 봉황대(일봉사)

공류면 벽계리의 봉황대는 봉황새의 머리처럼 생긴 엄청난 바위 절벽 위가 웅장하여 50여명이 앉을 수 있고 석문(石門)과 약수대, 네 개, 개구이 두 곳인데 옛 시절에는 선비들이 모여 시회(詩會)도 열면서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바로 옆에 일봉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서기 727년에 신라의 예조소부인 장간한 성덕왕이 현재 일명사의 전신이다.

4 벽계관광지

벽계관광지는 공류면 벽계리에 있는 한우산의 참바위 아귀에 의령군이 조성한 야생정이다.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참바위계곡, 산악산, 자굴산 등 산길도 있다. 봄에는 한우산에서 철쭉이 열리고, 만고 의령 예술촌에서는 해마다 대체로 온도에 맞춰 펼쳐진다.

5 정암루(솔바위)

의령과 함안의 경계사이를 흐르는 남강 물속에 있는 솔바위 모양을 닮은 솔바위, 즉 정암(鼎岩)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솔바위를 기준으로 사방 8km 이내에 세 명의 큰 갑부(甲冑)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의령군 장곡면에서 삼정그룹 회장 이병철 회장, 진주시 지수면에서는 LG그룹의 연암구인회 창업주가, 함안군 군북면에서는 효성그룹의 만우조종제 창업주를 배출했다.

6 탐바위

탐바위는 남강을 끼고 있는 정곡면 죽전리의 호미산(虎尾山) 중간지점에 있다. 생강새가 탐바위와 탐바위 탐바위라고도 부른다. 약 400년 전 장영실 장군에 의해 세워졌는데 높이 약 8m로 적대기에 후로 이끼가 덮여 있고 주위 경관이 좋다. 바로 옆에 불암굴(佛岩窟)이 있어 찾는 이가 많다.

7 수도사

수도사(修道寺)는 종덕면 이북리 신덕사의 종덕에 있는 602년 신라의 30대 문무왕 건에 고승(高僧) 원로대사에 의해 창건된 절이다. 절의 뒷산에 병풍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당시 원대사는 이곳에서 벽에 명의를 지어 함께 수도를 하였다고 하며 이 때문에 수도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593년 선조 26년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사명대사(西溟大師) 유경이 다시 이 절을 중건하였다고 한다.

8 백산 안희제선생 생가

유사조와 이후 국권 회복을 위해 항일 독립운동에 애생을 마친 부림면 입산리의 백산 안희제선생의 생가는 조선 후기 만가정축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풍화와 훼손이 많이 되어 문화재로 지정하기 후 복원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9 호암 이병철회장 생가

정곡면 호암리에 위치한 이병철회장 생가는 종수지리에 위치한 생가인 노복현 형상으로 바위 노복현의 대청을 끝부분에 자리를 잡아 그 지세가 웅장할 뿐만 아니라 10리 밖의 남강이 역수를 이루면서 용의 맥을 잡았기 때문에 백산(白山)의 명당을 잡았기에 명당 중의 명당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어 사계절 경치 감상할 만(萬)을 만드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주요 통계 현황

면적 및 인구

면적 (㎢)	인구(명)			세대 수	인구밀도 (명/㎢)
	계	남	여		
482.9	26,322	12,966	13,356	15,010	54.5

행정구역

읍·면	법정	행정	반	자연마을
1읍 12면	116	238	580	264

학 교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33	10	14	5	3	1

연령별(주민등록인구)

연령별	계	0~19	20~29	30~39	40~49	50~64	65세 이상
인구수(명)	26,322	2,430	1,826	1,620	2,685	7,647	10,114
비율(%)	100	9.23	6.94	6.15	10.20	29.05	38.43

의료기관

계	병원	의원	요양병원	치과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료소
49	4	10	2	5	6	1	11	10



2021. 12. 31. 기준